

## 주택 침수·가축 폐사... 200mm 물폭탄에 '속수무책'

광주, 수완지구 침수·황룡강 장륙교 일대 주민 158명 한 때 폐피 전남, 논밭 잠기고 제방 무너지고... 무안서 오리 2만여 마리 폐사

광주-전남 지역에 밤 사이 200mm가까운 집중호우로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남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8개 시·군에서 농경지 1299ha가 침수됐고 2만 마리가 넘는 오리가 폐사하는가 하면, 도로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제방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관련기사 6면〉

◇광주, 38건 피해 신고 접수=광주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총 38건(도로 침수 19건·주택 침수 6건·토사 낙석 4건·배수지인 1건·기타 8건)의 호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하남 6번 도로·광산구 수완지구 일대가 침수돼 차량 2대와 탑승자, 주민 2명 등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으며, 24일 오전에는 총장로 빈 노후 상가가, 지난 23일에는 남구 방림동의 한 불법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황룡강 장륙교 인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주변 신덕·장록·송촌 마을 등 101가구 158명이 광주광산구청 등으로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한때 광주전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양동북개상가 하부 등 둔치 주차장 11곳, 장륙교와 풍영정전 1·2교 등 교량 3곳, 신덕·송정 등 지하차도 2곳, 광안교·광천1교·광천2교·극락교·광신대교·서창교·평동교·첨단대교 하부 도로 12곳, 광주전 선책로 전 구간,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로 2개 노선 등이 통제되기도 했다.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선제적으로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소집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국외 출장 중인 강기정 시장 주재로 '긴급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화상회의 등을 진행했다.

◇전남, 논·밭 1299ha 물에 잠기고 제방 무너지고=피해가 집중된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이들 간 무안 255.0mm, 함평 244.0mm, 목포 191.4mm, 광주 118.1mm 등 국지성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 평균 71.4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했다.

집중호우로 밤 사이 전남 각 소방서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만 252건(인명구조 3건·안전조치 233건

·배수 16건)에 달했다.

목포 석현삼거리 일대 왕복 8차로 도로는 이날 이른 허벅지 높이까지 흙탕물에 잠겨 주유소, 금융기관, 카페 등 상점 10여 곳이 문을 닫았고 산정동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도 침수됐다. 목포에서만 주택 20채가 침수 피해를 봤다. 영암군 삼호읍에서는 아파트 상가 10개 등이 침수됐고 영광에서는 이날 오전 불어난 빗물에 주택이 잠기면서 소방 당국이 고립된 주민 3명을 구조했다.

나주 영산중학교도 경사면에서 토사가 행정실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피해를 입었고 무안에서는 마동 선착장에 계류 중이던 선박 7척이 침수 피해 등을 입어 해경의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농경지 침수 피해도 급증했다. 함평(450ha)·무안(381ha)·신안(196ha)·영광(118ha)·장성(100ha)·영암(28ha) 등 8개 시·군의 농경지 1299ha가 물에 잠겼다. 비(1272ha)가 침수되는 피해가 가장 많았고 공(20ha), 대파(7ha) 등도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무안군 현경면에서는 키우던 오리 2만1500마리가 폐사했다.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함평에서만 3개 도로 경사면이 집중호우로 쓸려나갔고 나주에서는 지방하천(안국천) 제방이 유실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화순 동북면 동북터널(700m), 국도 77호선 무안군 해례면 유휴리 창동마을(20m), 국도 1호선 함평군 엄다면 송천교 일대와 손불면 공산리·함평을 장년리 일대, 학교면 고막리 일대는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주재한 뒤 목포 도심 침수 피해지와 함평 하천 범람 우려 현장, 화순 낙과 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대책회의에서 "물발상·계류라성 강우는 앞으로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특히 이번 호우로 도심 침수피해가 많았던 만큼, 저지대 등 상습침수 지역 이물질 제거와 지하차도 차단시설 작동 점검 등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유연재 기자 lucky@kwangju.co.kr



함평천지 논·도로 '물바다' 광주·전남에 폭우가 쏟아진 24일 오전. 함평군 학교면 원곡창마을 일대의 논과 마을 진입로 등이 물에 잠겨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4만명대 후반 독감도 유행... 마스크 다시 써야 하나

광주 1059명·전남 1296명

방역정책 완화와 역대급 폭우를 동반한 장마시즌 장기화 등으로 실내 생활시간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방역 조치를 한자레 더 완화할 예정이어서 시민들 사이에선 '한여름에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18~24일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4

만 1995명→4만 7029명→4만 861명→4만 904명→4만 2500명→4만 1590명→1만 6784명이었다. 일 평균 3만 8809명으로, 직전 1주일간(2만 7955명)과 비교하면 38.83%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1월 17일(4만169명)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지난 19일 기록한 4만7029명은 1월 11일(5만 4315명) 이후 최다 감염자 수다.

광주지역도 주간 1일 평균 확진자수가 '6월 21~27일' 529명에서 '7월 12~18일' 1059명으로 두 배를 넘어섰으며,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488명에서 1296명으로 확진자가 경증 뒀었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여름철 무더위까지 뚫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독감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8주차인 지난 9~15일 광주·전남 등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중 독감 증상을 보인 의사환자 수는 1000명당 16.9명이었다. 직전 주의 16.3명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최근 3주 연속 증가세다. 16.9명은 2022~2023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3배를 넘어선 수준이다.

독감 확산세가 꺾이는 여름철에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나는 이상 현상을 보이면서, 지난해 9월 16일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전 국민이 방역 조치를 잘 지켜 2년간 독감 유행이 없다 보니 자연감염을 통한 집단면역 정도가 낮아 유행이 장기화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극한 호우에 극한으로 뛰는 물가	▶8면
굿모닝 예향 - 화순 힐링 여행	▶18·19면
여자월드컵, 오늘 콜롬비아와 첫 대결	▶22면

### 바이탈뷰티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 명작수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